

韓國老人의 老人亭 參與에 關한 研究

金 東 培*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모임은 그들의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략 네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巷間에 이야기된다. 첫째, 社會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私的인 클럽을 만들거나,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다방이나 養院을 중심으로 모인다. 둘째, 中上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기관(노인대학 혹은 노인학교)에 다닌다. 셋째, 中下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정에 나닌다. 넷째, 아주 낮은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의 경우에, 공원이나 고가도로 밑 혹은 복덕방 주위에서 消日한다는 것이다. 독립정신을 갖고 있거나, 노인정에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저 노인들의 값싼 휴식처로 밖에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노인정이 低級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되겠고, 病弱하거나 용돈이 충분하지 못하여 노인정에 낼 會費조차 마련하기 힘든 노인에게는 노인정이 高級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정이 下部團體로 소속되어 있는 社團法人 大韓老人會는 소속되어 있는 社團法人 大韓老人會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약 4분의 1을 회원으로

*연세대 강사

**본 연구는 필자가 1988년 2월 美國 Michigan州 Ann Arbor소재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Factors Influencing Senior Center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Korea의 일부를 수정, 요약한 것임.

활용성이 강한 많은 노인들은 노인정을 外面하고 있다. 또한 노인정들 통해 노인의 福祉를 개선하고 社會參考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사업은 財政, 프로그램 開發, 運營技術, 人的資源 確保 및 地域社會로부터의 技術 등의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노인정의 회장이나 임원들은 지역사회 內의 有能한 人材를 포섭하여 노인정 사업에 活氣를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훌륭하게 설치된 노인정 시설을 노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內의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다. 그렇다면 우선 노인정의 윤곽을 정확하게 그리고 노인정 운영의 主體인 參考者와 노인정 가까이 살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²⁾ 이러한 과학적 자료를 갖고 노인정의 미래를 構想할 때 무리와 낭비가 없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및 重要性

따라서 本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노인정 활동에 참여하는가 혹은 참여하지 않는가를 조사해서 參考者와 不參考者의 主要 차이점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둘째, 참여 혹은 불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그 요소들 중 어느 것이 참여 혹은 불참을 豫測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한가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으로서 첫째, 참여 혹은 불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判明하여 그것들 사이의 相對的 重要性를 이해할 수 있다면 노인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노인정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집단에 관한 多大한 정보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 사회적 서비스를 계획함에 있어서 科學的이고 經驗的인 발견

-
- 1) 1960년대 數的으로 급속한 성장을 본 노인정은 1985년 本연구조사 당시 전국에 약 11,500개의 노인정에 약 6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2) 本 연구에서 "노인정 참여"란 노인들이 오락과 社會化를 위해 노인정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보통 "노인정에 다닌다"는 뜻이다. 社會計劃 課程의 한 요소인 "意思決定에의 參與"와는 구별된다. 또한 노인이란 노인정에 다닐 자격인 60세이상 퇴직자들을 뜻한다.

있어서 준와와 사상의 자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무리를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정을 통한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이론적인 틀의 根據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셋째는 노인정 연구 자체의 중요성이다.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 노인정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통한 행복의 증진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우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서비스 기관이나 自願團體(Voluntary Association)가 노인정 이외에는 거의 全無한 상태이고, 또한 노인복지의 다른 중요과제인 所得保障, 醫療保障, 住宅供給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財源을 要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II. 文獻研究

1. 社會的 서비스의 利用에 關한 研究

歐美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서비스 이용(Social Service Utilization)은 여러가지 요인들, 즉 社會人口學的, 社會心理學的, 經濟的, 地域社會的, 地理的, 組織體的, 그리고 環境的 要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발견들은 상호순서적인 것들이 많고, 정작 사회적 서비스의 一環으로 여겨지는 노인정(Senior Center)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Krout와 Radnor가 설명하고 있듯이,³⁾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知識(어떠한 서비스가 있는가?), 認識(그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利用(자신을 위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非理論的(atheoretical)이다. 즉 명백하게 假說이 설정되었거나 어떤 모델이나 이론이 檢定되어 발전된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연관이 있는 많은 요소들 중 몇 개만을 골라 조사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설명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3) John A. Krout, "Service Utilization by the Elderl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Gerontological Society, Toronto, 1981; Kessaria M. Radnor, A study of the Participation of Senior Adults at a Community Senior Center, Ph.D. Dissertation, The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1981.

내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조정하여 그 相異點들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별로 없었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주로 상이한 조사대상, 방법, 시대,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관련이 있는 광범위한 요인들을 동시에 조사해서 각 요인마다 그 중요성의 정도를 밝혀내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란 말은 온갖 잡동사니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특정한 프로그램에 어떤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지 구분해 내기가 어려웠다. 전통적으로 노인정 사업은 서비스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노인들이 노인정을 통해 指導力을 함양한다거나 自願奉仕를 통해 社會參與를 시도하는 것등은 度外視되어 왔다.

2. 理論的인 들

醫療 서비스의 利用(Medical Service Utilization)에 비하여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본 연구는 歐美에서 70년대 初 이래 의료서비스의 이용 분야에 자주 등장하는 Andersen모델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이론적인 틀로서 사용하였다.⁴⁾ 의료 서비스에 관한 Andersen모델을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최근에 종종 시도되었다.⁵⁾

이 모델은 개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傾向性(Predisposing), 可能性(Enabling), 및 慾求(Need-for-Care 혹은 Illness Level) 要因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傾向性 要因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背景的 特長을 말하며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조적, 그리고 태도 및 신념의 변수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해도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으면

4) Ronal & Andersen & John F. Newman,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 Health and Society*, 1973, 51(1), 95-124.

5) Wornie L. Reed, "Access to Services by the Elderly : A Community Research Model,"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980, 3(1), pp.41-52 ; Charles H. Mindel & Roosevelt Wright, "The Use of Social Services by Black and White Elderly : The Role of Social Support System,"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982, 4(3/4), pp.107-125 ; Richard A. Starret & James T. Decker, "The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by the Mexican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986, 9(4), pp.87-101 ; John A. Krout, "Rural-Urban Differences in Senior Center Activities and Services," *The Gerontologist*, 1987, 27(1), pp.92-97.

지역사회의 여건을 말한다. 앞으로, 경향성과 가능성의 요인들이 있다해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慾求가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서비스의 이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자신에 의해 인식된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에 의한 진단이 포함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이란 여러 원인 결과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과정이다. 즉 가능성 요인은 경향성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욕구 요인은 경향성 및 가능성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은 이 세 요인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는다.⁶⁾

본 연구의 從屬變數는 名目變數로서 參與 혹은 不參與의 二分變數이며,⁷⁾ 獨立變數는 본 연구의 探究的 特性에 따라 그동안 歐美와 우리나라에서 노인정 참여나 기타 사회적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발견되어진 대부분의 요소들을 網羅하였다. Andersen 모델에 따라 이 요소들을 구분하면 <그림1>과 같다.⁸⁾

그림과 같이 41개 변수를 세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변수 묶음을 약간 변경시킨 것은 Andersen 모델의 수정이 목적이 아니고, 노인정에 다니는데 障礙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성은 任意的인 것으로서 앞으로 이 분야의 계속적인 연구에 의해 수정되어 질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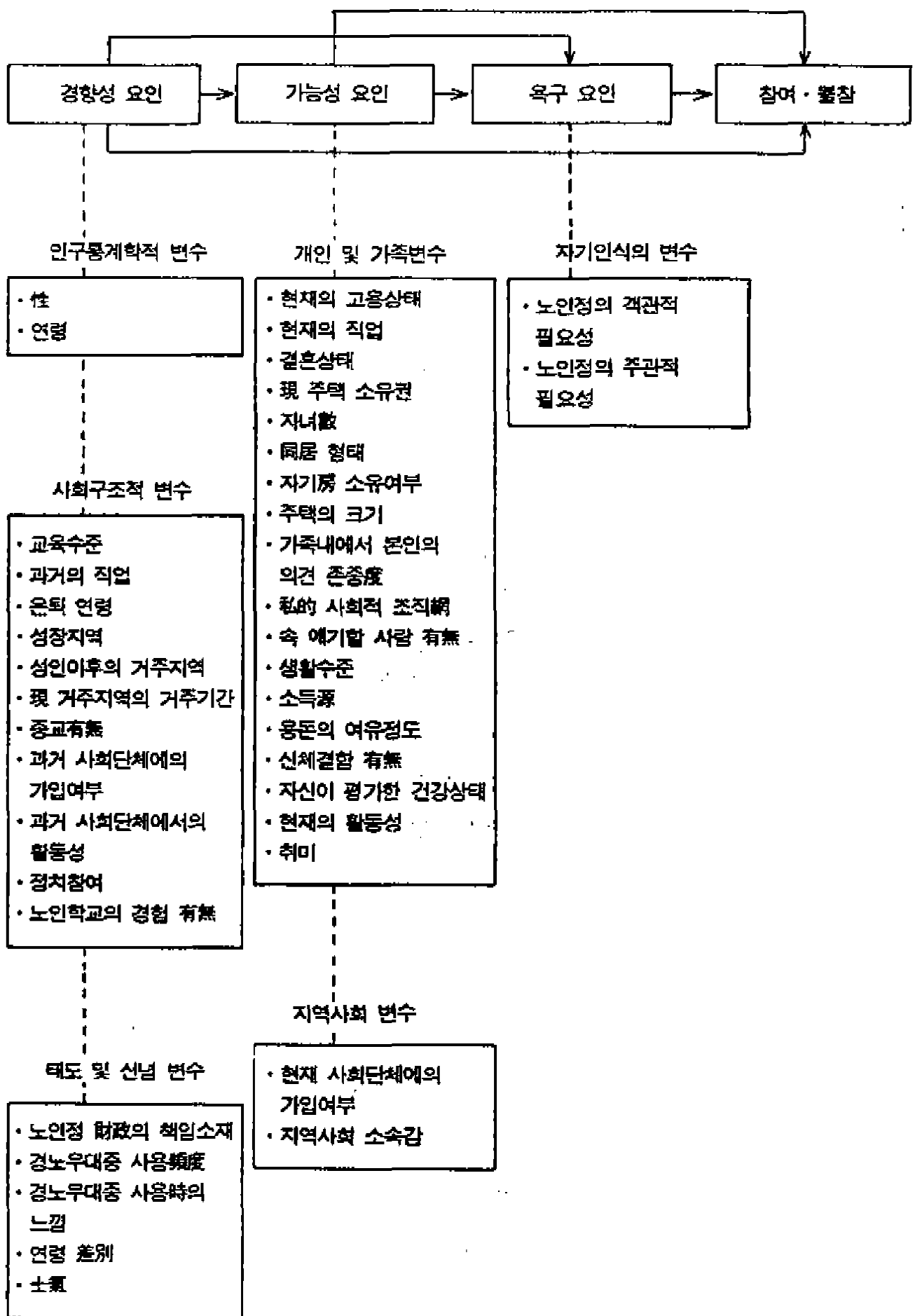
위의 것과는 맥락을 달리하여 노인들이 노인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 참여자에게는 노인정에 대한 매력, 불참자에게는 불참이유를 질문하였다.

6) Andersen 모델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Russll A. Word, "Services for Older People: An Integrated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77, 18(1), pp.61-70을, 비판하는 것으로서는 Fredric D. Wolinsky, "Assessing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Illness-Morbidity Characteristics on Health Service Utiliz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78, 19(4), pp.384-396 참조할 것.

7) 設問紙에는 노인정에 다니는 횟수를 질문하고 그 응답을 6별주로 나누었으나, 자료 처리과정에서 2분화하였다. 노인정 참여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나오고, 불참자는 극소수만이 다니다가 그만 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횟수대신 참·불참으로 2분화하였다.

8) 각 변수의 내용과 응답범주는 필자의 논문 pp.54-63을 참조할 것.

9) 어느 특정한 변수가 어느 요인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조사대상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그 예는 John A. Krout, "Correlates of Service Utilization the Rural Elderly," *The Gerontologist*, 1983, 23(5), pp.500-504, 그리고 Zev Harel, "Nutrition site Service Users: Does Racial Background make a Difference?" *The Gerontologist*, 1985, 25(3), pp.286-291. 참조할 것.



III. 調査方法

1. 調査設計

노인정 참여는 多次元的인 현상이어서 조직체적,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인 맥락속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적인 결정요소, 지역사회나 사회구조와의 관계, 생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인정 참여요인을 밝히려는 最初의 시도인 만큼 探究的研究方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었고, ¹⁰⁾ 광범위한 요소들을 동시에 평가하여 각 요소들의 중요성을 발견해 내기 위해 標本調査를 실시하였다.

2. 標本抽出 및 資料收集 過程

노인문제의 많은 부분은 産業化·都市化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화·도시화된 지역인 서울에 살고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985년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40만명이었고 그 중 약 15%인 6만3천명이 1,015개의 노인정에 다니고 있었다. 표본의 크기는 320명이었는데 본 연구가 채택한 層化標集에서 分布가 불확실한 母集團의 크기 40만명에 대해 95%의 신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다.

면담을 위한 設問紙는 2번의 事前檢査를 거쳐 확정되었는데 첫번째는 大田에서 필자에 의해 20명을 상대로, 두번째는 표본추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 다른지역에서 4명의 면담자에 의해 각각 3-4명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標集誤差를 줄여 代表性을 보다 잘 확보하기 위하여 약간 수정된 2단계 층화표집 방법이 사용되었다. 1단계에서는 1985년 현재 서울 시내 1,015개의 노인정에서 참여자가 40% 이하인 노인정을 빼고 남은 851개 노인정을 그지역의

10) 탐구적 연구방법이란 보통 어느 연구분야에 축적된 지식이 미약하거나 문제제기 단계정도에 있을 때 사용되며, 그 목적은 장차 더 정확한 조사를 하기위한 가설의 설정을 돕기 위함이다. 장차 타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변수들을 조합하여 노인정 참여, 기타 사회적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노인정을 부작위로 주출하였다. 그렇게해서 선택된 노인정은 은마 APT 노인정, 장미 APT 노인정(이상上), 번1동 노인정, 신당 1동 노인정(이상中上), 방학 2동 노인정, 잠실 4동 노인정(이상 中下), 마장동 제 4 노인정, 사당 2동 노인정(이상 下)이었다.

2단계에서는 非比例的 層化標集을 하였다. 남녀의 數와 참여자·불참자의 數를 가급적 동등하게 하기위해 한 노인정 관할구역에 40명씩 즉 男 참여자, 女 참여자, 男 불참자, 女 불참자 각각 10명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참여자의 경우는 각 노인정 회장의 협조로 별 문제 없이 목표 數를 달성하였으나 불참자의 경우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장애요소가 많았다. 洞事務所의 협조로 그 지역內 60세 이상 노인의 명단을 系統標集을 통하여 확보하는 일은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면담을 위한 협조서신에 대한 응답율은 극히 저조하여(400명중 15명, 3.8%) 명단을 보고 家家戶戶 방문 하였으나 역시 別無效果여서(28명 면담) 하는 수 없이 나머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지역 內 골목과 공원을 다니면서, 혹은 소개를 받고 집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한 偶發的 標集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85년 여름 면담을 실시한 사람은 참여자 162명, 불참자 158명이었고, 性別로 보면 남자 179명, 여자 141명이었다.

3. 資料分析

자료의 분석은 Michigan 대학교에서 개발한 MIDAS(The Michigan Interactive Data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였다. 표집의 특징을 설명하고, 어느 변수가 참·불참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t 檢證과 Chi 自乘을 사용한 二變量分析(Bivariat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은 우리의 표집을 참여자와 불참자라는 두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이 두 집단을 가장 잘 判別하는 요소들 중 最適의 一團(Optimal Set)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線形關係가 성립하는 것을 가정한다. 분석과정에 있어서는 판별력이 약하거나 중복되는 변수를 제외시키는 段階別(Stepwise) 技法을 사용하였다.¹²⁾

- 11) 생활정도에 의한 구분은 어떤 表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서울시청과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도움을 얻어 필자와 면담자의 판단에 그 기초를 두었다.
- 12) 판별분석에는 41개의 독립변수 중 34개만이 사용되었다. 性과 연령은 고의적으로 같은 數를 표집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직업, 은퇴연령, 은퇴형태, 경노우대중 사용빈도, 경노우대중 사용時의 느낌 등은 missing case가 너무 많아 분석 전체의 質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IV. 調查結果

1. 老人亭 實態 및 應答者의 特徵

8개의 노인정은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반면에 공통적인 면도 많았다. 첫째, 노인정에 나오는데 대개 5분 이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歐美에서 문제되고 있는 施設에의 接近(Accessibility)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둘째,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 여성노인의 참여가 높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 지역의 노인정이 비교적 커서 할머니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 여성노인의 사회참여에 男女七歲不同席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효과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셋째, 노인정 안에 부착되어 있는 많은 標語를 종합해 보면 “몸과 마음을 새롭게하여 사회에 공헌하자”인데 이러한 理想과는 달리 대부분 노인정은 休息空間으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넷째, 모든 지역에서, 특히 빈곤한 지역의 경우 활동을 위한 基金을 확보하는데 난관이 있었다. 다섯째, 노인정을 管掌하는 大韓老人會의 평판이 참여자들 사이에, 특히 직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좋지 않았는데 이는 대한노인회의 支援活動이 期待以下이기 때문이었다.

응답자의 특징 중 特記할 만한 부분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¹³⁾ 응답자의 연령은 절반이 65-74세이었는데 참여자의 연령이 약간 높았다.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는 無學이 제일 많았으나(45%) 참여자가 불참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으나(88%) 그래도 불참자는 참여자 보다 더 많이 고용되어 있었다. 과거의 직업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참여자의 가장 많은 직업은 農漁林業으로서 41%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불참자는 44%가 自營商이었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가정주부이었으나 참여자의 약 5분의1은(22%) 自營商을 하기도 하였다. 은퇴의 형태를 볼 때, 가장 많은 것은 건강과 능력의 弱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非自發的으로 퇴직한 것이었으나(45%), 자녀나 친지의 권유에 못이겨 그만둔

13) 本節에서는 참여자와 불참자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다”, “약간 많다”, “높은 경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겠는데 이것들은 모두 0.05수준이상의 有意度를 갖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노인정 재정 책임에 가장 큰 몫을 해야하는 것으로 共히 정부를 선택하였지만(47%), 불참자 중 20%는 지역사회 및 有志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불참자의 경우 정부에의 一方的인 의존을 경계하고 있다. 成長期에는 共히 농어촌에서 많이 자랐지만(61%), 불참자 중 상당수는(30%) 大都市에서 성장하였다. 成人이 된 후에는 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였지만(57%) 농어촌에 계속 거주하다가 서울로 옮긴 사람도 상당수(33%) 되었다. 전체적으로 現 거주지역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가 42%이었지만 참여자가 불참자보다 더 오래 살고 있었다.

가정 内の 여러가지 상황이 노인정 참여라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下에 몇가지 變因이 선택되었다. 결혼상태를 보면 참여자의 55%는 배우자가 있고 불참자의 58%는 배우자와 死別한 독신노인이어서 배우자 생존은 참여자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은 자녀가(47%)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참여자는 자신의 집에, 불참자는 전세등 他人의 집에 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가 보다 안정된 주택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既婚子女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65%) 불참자의 경우 상당수는(20%) 미혼자녀 혹은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대부분 배우자와 같이 혹은 혼자서 사용하는 房이 있었고(69%) 손자녀와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꽤(25%) 있었다.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응답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약 5분의 이(59%) 잘 반영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진정한 속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노인 고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私的 社會的 組織網의(Informal Social Network) 구성요소 중 형제·친척을 만나는 빈도가 자녀·손자녀 혹은 친구·이웃을 만나는 빈도보다 훨씬 떨어진다(형제·친척을 거의 안만난다가 응답자의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불참자보다 형제·친척을 만나는데 있어서 좀 더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같은 나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많은 경우(57%) 더 좋다, 약 4분의1은(23%) 더 나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실제 지난 반년동안에 있어서 3-4일 이상 병석에 누워있었던 것은 불참자가 두배정도(9% 對18%) 많았다. 收入源은 대부분 자녀로부터의 원조이지만(66%) 참여자의

생활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교육수준과 관련지어 볼 때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은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라는 일반의 인식이 꼭 맞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경노우대층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所持者의 35%는 자주 사용), 부정적 견해를 갖는 사람이 60%가 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되어야함을 나타냈다.

老化現象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활동은 언제나 關心事이다. 과거에 私的인 사회단체에 가입했던 경험은 대체로 저조하지만(75%가 無 경험) 참여자가 불참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조사 당시 두 집단 共히 私的 사회단체에의 가입이 극히 저조하여(9%) 노인들의 社會的 在統合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종교를 갖고있는 사람은 62%이었지만 종교집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26%나 되어서 노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음이 발견되었다. 취미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약 3분의 2인(64%)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노인들의 단조로운 생활이 재 확인되었다. 上記한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활동을 합하여 活動性을 측정하였는데 두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같이 어울리고 싶은 연령계층으로는 절반이 同年輩를 선택하였으나 더 젊거나(28%) 여러 연령계층도(23%)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아 프로그램 개발時 다양한 연령계층의 참여를 고려해 볼직하다. 조사 몇 해 전의 국회의원 선거에 절대다수(95%) 참여한 것으로 보아 노인들의 높은 정치참여 경향을 알 수 있다. 노인학교에 다닌 경험은 대체로 저조한 편이나(19%) 참여자가 비교적 많이 다닌 것으로 나타나(26% 對 11%) 노인정 다니는 사람들이 노인학교에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士氣와 지역사회 소속감에 있어서 참여자가 불참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별한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노인정에 다니는 것이 안다니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관심도 갖고 生活滿足度도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인정 참여자 중 환경, 시설, 프로그램, 운영내용,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노인정에 대체로 만족을 느끼면서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56%이고 나머지 44%는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스럽지만 그저 다니는 경우이었다. 노인정에 다니기는 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전체의 5분의2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저 放置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참자의 절반이상이 노인정과 같은 노인의 여가 혹은 복지시설이

한다면 장차 불참자의 상당수를 포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불참자의 주요 불참 이유로는 27%가 바빠서, 16%가 프로그램이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14%가 특별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건강때문에(9%) 또는 노인정 다니는 사람들과는 같이 어울리기 싫어서(8%)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다.

有意度檢證의 결과 두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표1).

참여자와 불참자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표1)

요 인	의미있는 차이있음	의미있는 차이없음
경향성 요인	교육수준★★	성인이후의 거주지역
	과거의 직업★★★	종교 有無
	노인정 財政의 책임소재★★	과거 사회단체에서의 활동성
	성장지★★	연령 差別
	現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정치참여
	士氣★★	
	노인학교의 경험 有無★★	
가능성요인	현재의 고용상태★★★	자녀數
	現 주택 소유권★★	가족 내에서 본인의 의견 존중度
	결혼상태★	자기房 소유여부
	同居형태★★	주택의 크기
	私的 사회적 조직網★★	속 얘기할 사람 有無
	소득源	생활수준
	지역사회 소속감★	용돈의 여유정도
		신체 결합 有無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
		현재의 활동성
		현재 사회단체에의 가입여부
욕구 요인	노인정의 객관적 필요성★★★	취미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P<0.05	★★P<0.01	★★★P<0.001

2. 多變量 分析

二變量 分析은 推理統計學에서 有意度 檢證의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關係의 強度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또한 그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이 서로간에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段階的 判別分析에서는 서로간의

단계에서 인위적 변수에 1이상의 F값을(Partial Multivariate R) 갖는 수라도 기여하는 변수만 선택하였다. 分析은 전체로서 한 번 실시하고, 그 다음은 性別, 年齡別, 地域別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참여자·불참자에 관한 판별함수 분석 결과

단계	선택된 변수	추가시 F값	표준화 판별 함수계수	R ²	분류의 정확성(%)
전 체					
1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225.49	-1.071★	0.48	80.9
2	생활수준	9.91	-0.209		
3	現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8.17	0.218		
4	성장지	6.58	0.246		
5	소득源	4.83	-0.117		
6	노인정의 객관적 필요성	2.99	-0.159		
7	과거의 직업	3.84	-0.140		
남 자					
1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86.72	-0.892	0.53	84.0
2	현재의 고용상태	9.91	0.244		
3	성장지	8.69	0.385		
4	노인학교 경험 有無	8.78	-0.203		
5	속 얘기할 사람 有無	5.27	0.317		
6	교육수준	5.87	-0.357		
7	과거의 직업	4.56	-0.594		
여 자					
1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104.93	-1.224	0.52	86.5
2	생활수준	9.61	-0.553		
3	교육수준	4.41	-0.348		
4	정치참여	3.19	-0.263		
5	現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3.29	0.287		
青 老					
1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118.54	-1.125	0.55	84.6
2	노인정의 객관적 필요성	9.17	-0.380		
3	소득源	6.50	-0.197		
4	現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3.85	0.301		
5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	3.70	-0.367		
老 老					
1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99.32	-1.095	0.45	81.0
2	생활수준고용상태	9.17	-0.463		
3	現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6.12	0.212		
4	성장지	5.05	0.190		
5	現 고용상태	3.21	0.318		
6	과거의 직업	3.77	-0.238		

단계	선택된 변수	추가시 F값	표준화 판별 함수계수	R ²	분류의 정확성(%)
부유한 지역					
1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138.69	-1.015	0.503	83.3
2	생활수준	10.80	-0.307		
3	現 고용상태	4.75	0.237		
4	현재 사회단체에의 가입여부	2.98	0.296		
5	과거의 직업	2.78	-0.171		
빈곤한 지역					
1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91.38	-1.014	0.46	82.9
2	現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14.97	0.442		
3	성장지	3.90	0.527		
4	과거의 직업	3.41	-0.288		

★ - 계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판별력과는 무관하다.

전체 판별분석의 결과 참여자·불참자 두 집단의 차이를 규정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그 判別力의 強度順으로 보면, 노인정의 主觀的 필요성,¹⁴⁾ 생활수준, 現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성장지역, 소득源, 노인정의 客觀的 필요성, 과거의 직업 등 7개의 변수이다. 생활수준 이외의 모든 변수는 <표1>에서 보듯 二變量 分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것들이다. 二變量 分析에서 보여진 변수들의 관계方向을 고려하여 판별분석의 결과를 설명하자면, 참여자는 노인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는 물론 주관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성장하고 과거에 농·어·임업에 종사하였던 사람, 재산수입이 있거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참여의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逆으로, 불참자는 노인정의 필요성을 객관적·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에서 성장하고 과거에 주로 自營商을 하였고, 자신이 직접 돈을 벌거나 비교적 생활수준이 낮으며, 그 지역에 별로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은 불참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7가지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참·불참) 分散의 48%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변수묶음은 320명의 응답자를 참·불참자로 분류하는 데 약 81%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

14) 전체와 각 부분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은 항상 포함되기때문에 理由는 생략하기로 한다. 즉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노인정에 다니는 개인적인 필연성이 있으며, 만약 노인정이 없어진다거나 노인정이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간다면 여가를 즐기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有無, 교육수준, 과거의 직업이 선택되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종존에서 성장하였고 농·어·임업에 종사하였고, 교육수준이 낮고, 속 얘기 할 사람이 있으며, 노인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남성노인이 참여의 경향이 높다. 전체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생활수준, 현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수입源, 노인정에 다닐 객관적 필요성 등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대신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노인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지, 속 얘기 할 사람이 있는지, 교육수준이 어떤지 등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꼭 ... 있겠다. 꼭 다닐만한 이유가 있는 것 다음으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여자의 경우엔 생활수준, 교육수준, 정치참여, 현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등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즉 교육수준은 낮으나 생활수준이 높고, 정치참여가 높고,¹⁵⁾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여성노인의 참여경향이 높은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60-69세에 있는 136명은 靑老로, 70세 이상의 184명은 老老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았다. 靑老의 경우엔 노인정의 객관적 필요성, 수입源, 현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가 선택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인 경우 참여의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老老의 경우는 생활수준, 현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성장지역, 현재의 고용상태, 과거의 직업이 선택되었다. 老老의 경우에도 현재의 고용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일을 할 것이 있다면 아무리 연세가 많은 노인일지라도 노인정에는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인정에 대한 불참자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중 지역의 생활정도가 上과 中上인 경우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으로, 中下와 下는 비교적 빈곤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았다.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서는 생활수준, 현재의 고용상태, 현재 사회단체에의 가입여부가 선택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노인정 참여와 관련하여 생활수준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 또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15) 정치참여가 높은 여성노인이 노인정 참여경향도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성노인의 투표참여는 거의 유일한 사회참여의 길이 될 터인데, 그러한 사회참여의 경향이 높은 사람이 지역사회내의 유일한 사회참여조직인 노인정을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수지역의 거주기간, 성장지, 과거의 직업이 선택되었다. 빈곤한 지역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참여하기 어려운 모습을 본다.

위에서 설명한 7가지 분류는 종속변수 分散을 45-55% 설명하고 있으며, 320명의 응답자를 참·불참자로 분류하는 데 약 81-87%의 정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最適의-最多가 아닌-변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다시 Andersen 모델에 따라 구분해 보면 <표3>과 같다.

최적변수집단에 포함된 변수

<표3>

요 인 포 함	포함되지 않음	R ²
경향성요인	노인정 財政의 책임소재 성인이후의 거주지역 종교有無 과거 사회단체에의 가입여부 과거 사회단체에서의 활동성 연령 差別 士氣	0.16
가능성요인	자녀數 결혼상태 同居형태 가족내에서 본인의 의견 존중度 자기房 소유여부 주택의 크기 現 주택 소유권 私的 사회적 조직網 용돈의 여유정도 신체결함 有無 현재의 활동성 취미 지역사회 소속감	0.14
욕구 요인		0.42
	노인정의 객관적 필요성(전, 청) 노인정의 주관적 필요성 (전, 남, 녀, 청, 노, 부, 빈)	

전: 전체 남: 남자 여: 여자 청: 靑老 노: 老老 부: 비교적 부유한 지역 빈: 비교적 빈곤한 지역

경향성요인 중 강한 판별력을 갖는 변수는 6개이다. 교육수준은 남녀 각각의 경우에, 정치참여는 여자의 경우에만, 노인학교 경험有無는 남자의 경우에만 중요하다. 과거의 직업, 성장지, 현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등은 대부분의 경우에 중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耆老의 남자에게 거주기간은 비교적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자에게 중요하다.

가능성요인에서도 6개의 변수가 강한 판별력을 갖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속 얘기 할 사람 有無는 남자의 경우에, 소득源은 전체의 경우이지만 특히 靑老의 경우에,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도 靑老의 경우에, 현재 사회단체에의 가입여부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의 경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 고용상태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 사는 耆老의 남자에게 중요하고, 생활수준은 특히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 사는 老老의 여자에게 중요하다.

욕구요인에 있어서 주관적 필요성은 모든 경우에 중요한 변수로 선택되었고, 객관적 필요성은 전체의 경우, 특히 靑老의 경우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靑老에 있어서는 노인정과 같이 노인을 위한 여가 및 복지시설이 지역사회 內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한 참여동기가 된다는 것, 즉 여가 및 복지시설로서의 노인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 分散을 설명해 주는 비율로서 경향성요인은 16%, 가능성요인은 14%, 그리고 욕구요인은 43%를 담당함으로써 두 변수만 갖고 있는 욕구요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¹⁶⁾

V. 結論 및 提言

1. 結論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노인정 참여가 노인복지증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노인정 참여자와 불참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 두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하는 변수들을 발견하여 그 변수들에 관심을 갖고 노인정의 面貌를 개선함으로써, 노인정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을 장차 노인정으로

16) Claudia Coulton & Abbie K.Frost, "Use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by the Elderl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2, 23(Dec), pp.330-339; Thomas T.H. Wan, Barbara G. Odell, & David T.Lewis, *Promoting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A Community Diagnosis*, New York: The Haworth Press, 1982; Fredric D.Wolinsky et al., "Health Services Utilization among the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83, 24(4), pp.325-337.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노인정을 계획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社會科學 研究에 있어서 社會經濟的 地位는 教育水準, 收入程度, 職業의 威勢度의 混合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노인의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는 그렇게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수준, 생활수준, 과거의 직업을 따로따로 측정하였다. 參·不參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중요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남녀, 연령의 高下, 지역의 생활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참여자는 대체로 농촌에서 성장하여 농업 등에 종사하였고 교육수준은 낮지만 현재의 생활수준은 비교적 높은 사람들이다. 逆으로 불참자는 도시에서 성장하여 自營商을 하였고 교육수준도 높아서 都市性向이 있지만 현재의 생활수준은 비교적 낮은 사람들이다. 참여자는 재산수입이 있거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지만, 불참자 중에는 현재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거나 경제적으로 노인정에 다니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도 많다.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불참자가 知的인 수준은 좀 떨어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어울리는 집단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활수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 老老, 비교적 부유한 지역의 경우에 중요한 요소임이 발견되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가한 여성노인이 집 밖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會費를 포함하여 노인정에 다니는데 소요되는 여러가지 경비가 靑老보다는 老老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빈곤한 지역보다는 부유한 지역에서 생활수준의 차이가 노인정 다니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 즉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노인에게 노인정의 문턱은 높은 것이다.

노인정 참여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 특히 경제적 차이는 항상 문제가 된다.¹⁷⁾ 異質的인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한 조직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인정이 진정 지역사회 노인들의 휴식처가 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17) Joyce Leanse and Sara B. Wagner, Senior Centers : Report of Senior Group Program in America, Washington D.C. :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1975 ; Louis Harris and Associates, The myth and Reality of Aging in America, Washington D.C. : The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 1975 ; Penny A. Ralston, "Senior Center Utilization by Black Elderly Adults : Social, Attitudinal and Knowledge Correlates," Journal of Gerontology, 1984, 39(2), pp.224-229.

있다.

現 거주지역에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은, 특히 비교적 빈곤한 지역과 여자의 경우에, 불참의 경향이 있다. 즉 외출이 잦지 않은 여성은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는 노인정에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 빈곤한 지역에서는 일종의 텃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유한 지역에서 경제적 여건이 문제가 된다면 빈곤한 지역에서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얼굴을 얼마나 넓게 아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노인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 同化를 위한 서비스를 계획해 볼 수도 있겠다.

남성의 경우, 노인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 노인정에 다니는 경향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아마 그 이유는 노인정과 노인학교가 대한노인회의 두 主要事業으로서 서로 연관성이 깊고, 또 많은 노인학교가 노인정 內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一括事業으로(Package Service) 묶었을 때 그 프로그램 間에 상호보충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참여율도 提高할 수 있다는 것이다. 歐美에서 Hot Meal Program을 노인정의 주요사업으로 포함시키면서 노인정을 지역사회 內의 노인복지 서비스의 據點으로 格上시켰듯이,¹⁸⁾ 우리나라도 휴식, 건강, 교육, 상담, 지역사회봉사 등의 諸事業中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개를 선택하여 일괄사업으로 전개한다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될 것이다.

남성에 있어서, 속 얘기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노인정 참여 경향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歐美에서의 발견과 동일하다.¹⁹⁾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진정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이든 개인의

18) 美國에서 The Older American Act의 Title III에 의해 마련된 영양섭취프로그램은 영양, 교통, 사회적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은것으로, 지역사회內 일정한 장소에서(예를들면 Senior Center나 Congregate Housing 등) 따뜻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온 노인들에게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집 밖을 나가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Meals on Wheels라는 이름으로 점심을 배달하기도 한다.

19) Penny A. Ralston & Mildred B. Griggs, "Factors Affecting Utilization of Senior Centers: Race, Sex, and Socioeconomic Dif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985, 9(1), pp99-111.

이다. 사회성이 부족하여 자기의 문제를 털어 놓을 대상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정은 相談事業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Kahn이 주장하듯,²⁰⁾ 과거에 가족 내에서 해결하였던 서비스가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核家族化 시대에는 사회적 서비스로 代置된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는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전화상담은 상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많이 개선하는 데 공헌하였지만, 여전히 일정한 한계가 있다. 노인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相談專門要員을 배치하여 노인들의 개인, 가정, 및 사회생활의 內的 고민을 듣고 助言을 해주는 일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다.

靑老의 경우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여의 경향이 높은 것은 노인정의 장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인들 중에 비교적 젊은 사람,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노인정과 관련을 맺음으로 노인정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쉬는 노인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노인정의 面貌를 갖출 때 참여자의 士氣로 올라갈 것이고 지역사회로부터의 支持도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부유한 지역의 경우, 현재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노인정에 불참의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한편 과거 사회단체에서의 활동성이 강력한 판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에게는 繼續理論(Continuity Theory)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²¹⁾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정 참여가 퇴직 후의 여가선용형태를 대표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이 理論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조직체가 滿開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가족과 관련된 변수들(자녀數, 결혼상태, 가족 내에서 본인의 의견존중度), 생

20) Alfred J. Kahn, Social Policy & Social Services, 2nd ed., New York: Random House, 1979, pp.14-16. 참조할 것.

21) 계속이론이란, 老化的에 적용형태는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온 생활양식을 유지하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공적 老化的을 위해서, 직업역할을 상실한 퇴직자는 남아있는 역할을 잘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Richard H. William & Claudine Wirths, Lives Through the years, New York: Atherton, 1965 참조할 것.

팔봉에 관련된 변수들(종교有無, 현재의 활동성, 취미) 및 여러 변수를 합하여 하나로 만든 혼합변수들은(士氣, 私的 사회적 조직網, 지역사회 소속감) 二變數分析에서는 두 집단 間에 의미있는 차이를 갖는 것도 있으나 判別分析에서는 모두 판별력이 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들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2. 提 言

앞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정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事項을 提案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발은 外部에서 考察되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대상자인 노인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에서 社會政策의 一環으로 노인정사업을 補強하려 한다면 科學的이고 定期的인 욕구조사를 위한 정부의 財政的인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정이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불참자를 위해서도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참여의 저해요소인 불합리한 운영방법, 재정 및 프로그램 빈곤, 사회경제적 차별, 텃세등의 惡條件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內에서 진정한 복지서비스의 據點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土着指導者는— 노인정 회장이나 임원— 準專門家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원래 土着의 準專門家는 서비스의 提供者 겸 受惠者로서, 서비스 기관과 그 顧客을(Client)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예산의 부족으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는 現 상황 下에서, 토착지도자는 지역사회內 여러가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지도자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財政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官僚的 組織體가 세력을 장악하는 현대사회에서 生存하기 위해서는 專門技術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토착의 準專門家는 이 분야의 專門家로부터 합리적 문제해결과 人的, 物的 投資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助言을 의뢰할 수 있어야한다.

이제 집단 표현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으로 이르게 되어 있다. 2次元的으로 이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개인적 결정요소에만 국한하였다. 둘째, 標集의 代表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單純無作為標集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여러가지 제약조건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대표성은 확보하지는 못했다.